

1940년대 시에 나타난 전통 생태의식 연구

- 운동주와 이육사 시를 중심으로

손민달*

- I. 서론
- II. 1940년대 시와 전통 생태의식의 관계
- III.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한 유기체적 인식-운동주의 시
- IV. 신화적 세계인 자연과 소외된 자아의 대비-이육사의 시
- 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40년대 시에 나타난 전통 생태의식을 운동주와 이육사의 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 사유체계에 내재되어 있던 생태의식이 어떻게 현대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증명하고 생태주의 시 연구에서 단절된 근대를 복원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운동주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유기체적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중심 사상을 거부했다. 전통적 사유체계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도를 전하는 인격체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1940년대 식민지 근대의 문제점을 인식한 운동주에게 전통사회의 자연의 위치를 복원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릴 것을 강조한 것은

*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단순히 자연친화적 태도와는 변별된다.

이육사는 현실세계의 고난을 원형적이고 신화적 세계로서 자연과 대비함으로써 그것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이는 현실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과거 회귀와 같은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태도다. 운동주의 시가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생태계의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동질감을 느끼려 하는 것과는 다른 세계 인식의 방법이다. 온전한 상태의 자연과 동질화 되지 못하고 소외된 인간을 그리는 것은 근대의 문제를 목도한 결과다.

1940년대 대표적 시인인 운동주와 이육사는 생태계의 동일한 구성요소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봄으로써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신화적 세계로서 자연이 등장하지만 인간은 그 속에서 소외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40년대 시인들이 근대의 문제점을 서서히 인식하고 이를 거부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주제어 : 생태주의, 상상력, 운동주, 이육사, 자연관, 유기체, 근대, 전통, 원형.

I. 서론

본고는 1940년대 운동주와 이육사의 시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의 특성을 비교하여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전통의 생태적 사유가 어떤 방법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 작업은 한국 시사(詩史) 기술에 생태주의¹⁾적 특성이 유효한 기

1) ‘생태’라는 용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동등한 지위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이 가진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태주의’라는 용어는 Andrew Dobson의 저서를 번역하면서 사용된 용어로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와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생활양식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도를

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근본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본고는 일제의 식민지 침탈 속에서 시인들이 보여준 현실 대응 양상과 관련하여 어떤 자연관을 가지고 시 창작에 임했는지를 구체적 시 작품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통사회의 사유체계 속에 내재되어 있던 생태학적 상상력²⁾의 특성을 확정하고 이것이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이는 1970년대 이후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해 서서히 확대되어 1990년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서 2000년대 후반 문학의 장에서는 분열과 쇠퇴의 길에 들어선 생태주의 시 연구의 단절적 한계성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21세기의 현대인에게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문제는 삶의 근본적 양식을 바꾸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인데 비해 이를 극복할 방법은 쉽게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문명을 중심으로 물질적 욕망의 노예가 된 현대인에게 욕망의 억제를 요구하는 생태주의가 과연 얼마나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현대인은 물질의 소비를 통한 욕망 충족과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려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다. 인간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인간이 극복해야 한다는 자명한 논리³⁾

내포하고 있다. Andrew Dobson, 정용화 역, 『녹색정치사상Green Political Thought』, 민음사, 1993, 26면.

- 2) 이규보, 서경덕, 신희, 홍대용, 박지원 등에 내재되어 있는 생태학적 사유를 증명한 박희병의 경우 “한국의 전통사상은 아름답고도 심원한 생태적 지혜를 간단없이 보여준다. 그 사유는 시적(詩的)이자 미학적(美學的)이며, 협소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만물이 근원적으로 동일한 존재로서 이른바 ‘생생지리(生生之理 : 하늘이 사람과 物을 끊임없이 낳는 이치)’에 따라 생명의 율동을 구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16면.
- 3) 머레이 북친이 중심이 된 사회생태주의는 인간의 계급적 상하관계에 의해서 오늘날의 생태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이 발생시킨 생태문제를 인간이 극복해야 한다는 자명한 논리를 강조한다.

에서 이 문제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해 시급한 과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생태주의는 1970년대 개발 위주의 성장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사회가 환경오염⁴⁾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점과 궤를 같이한다. 더불어 1980년대 정치·사회적 이슈가 최고의 가치문제로 떠올랐던 현실에서 서서히 탈중심화 되어가는 1990년대 초기의 역사적 맥락과 같이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생태주의에 대한 관심의 일단이다. 즉 리얼리즘의 쇠퇴와 함께 주변부에 있었던 생태 파괴 문제를 본격적인 문학의 장에서 논의하고 표현하게 되면서 생태주의는 문학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는 생태주의의 본격적 시작이 리얼리즘의 공황 상태를 넘어서려는 문학적 대안이었음을 의미한다.⁵⁾

윤동주(尹東柱, 1917~1945)는 1948년 유고시집이 출판된 이후 1970년대 연구가 본격화되어 꾸준히 그 성과를 축적해 왔다.⁶⁾ 그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제에 저항한 ‘저항 시인’으로 파악하는 경우와 이에 대한 반론으로 ‘순수서정시인’으로 보는 태도이다. 여기에는 실향 의식, 저항의식, 부끄러움, 기독교적 원죄 의식, 천재 미학의 추구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와 상당부분 관련된 논의와⁷⁾ 윤동주의 부끄러움을 지나친 결벽증의 죄업망상으로 보고 동시 취향에 대해 현실과의 객관적 유대가 단절되는 심리적 퇴행으

4) ‘환경’이라는 용어 속에는 ‘인간중심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오염의 문제를 인간의 자연과학적 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표피적 생태주의’와 상통한다. 한국에서 1990년대 생태주의가 본격화 된 것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부터라 하더라도 인간과 자연의 동등한 관계성을 중요하게 거론한 심층생태주의의 주장과 다른 것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5) 손민달, 「한국 생태주의 문학 담론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8.6, 84-92면.

6) 윤동주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 300편이 넘는 성과를 축적했다. 김용주, 「윤동주 시의 자아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04, 2면.

7) 권석창, 「한국 근대시의 현실 대응 양상 연구」, 대구대 박사논문, 2002, 11면.

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⁸⁾ 다음으로 기독교와 내면의식의 문제를 다룬 연구사가 있다. 기독교 세계를 운동주의 주요한 시각 기준으로 설정한 논의는 앞서 제기된 역사사회학적 관련성은 축소하고 종교적 시각을 강하게 제기한다.⁹⁾ 운동주의 의식세계에 관한 연구는 특히 운동주의 자아성찰의 과정을 끊임없이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¹⁰⁾ 마지막으로 운동주의 동시연구가 있다.¹¹⁾ 이들은 운동주의 시의 총량에서 동시의 비중이 높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향을 잘 보여주어 아동문학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주장했다.

-
- 8) 이에 대한 논의는 김열규, 「운동주의론」, 『국어국문학』제27호, 1954를 필두로 오세영, 「운동주의 시는 저항시인가」, 『문학사상』, 1974년 4월 등이 있다.
- 9) 김주연,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 『문학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1987.
강신주, 「한국 현대 기독교 시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2.
박춘덕, 「한국 기독교 시에 있어서 삶과 신앙의 상관성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3.
최문자,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의 상징적 해석』, 태학사, 1999.
한영일, 「한국 현대 기독교 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0.
이황직, 「근대 한국의 윤리적 개인주의 사상과 문학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2.
- 10) 최동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물의 심상과 의식의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1.
정순진, 「운동주의 시에 나타난 세계경험적 자아의 양상」, 충남대 석사논문, 1984.
이남호, 「운동주의 시의 의도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6.
이상호, 「한국 현대시의 자아의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88.
이승원, 「운동주의 시에 나타난 자아의 변화양상」, 『국어국문학』제107권, 국어국문학회, 1992.5.
김유중, 「운동주의 시의 갈등양상과 내면의식」, 『선칭어문』제21권, 서울대 사범대국어교육과, 1993.9.
김수복, 「운동주의 시의 세계인식과 자아동일성」, 『단국대학교논문집』제28권, 1994.6.
지현배, 「운동주의 시의 의식현상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01.
- 11) 김효중, 「운동주의 동시 세계-휴머니즘과 자연친화」, 『국어국문학』제108권, 국어국문학회, 1992.12.
김석환, 「운동주의 시의 기호학적 연구-동심의 상실과 회복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1권, 1995.1.

이육사(李源祿, 1904~1944)는 생전에 시집이 출간된 적은 없으나 꾸준히 발굴과 정리 작업을 거듭하면서 197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¹²⁾ 그는 특히 직접 몸으로 체험한 항일 이력과 함께 시에 나타난 지사적 특성으로 인해 독립투쟁과 저항시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의 시에 나타난 ‘청포 입고 오는 손님’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바로 그러한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징표가 되어왔다. 그에 대한 연구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그의 전기적 사실과 함께 사회·역사적 관련성에 주목한 경우가 있다.¹³⁾ 이들은 육사의 항일투쟁 활동을 통한 저항의식과 선비 의식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다음으로 시의 언어나 구조 등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¹⁴⁾ 이들은 남성적, 대륙적 어휘를 사용하여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시·공간의 특성을 순환성이나 초월성으로 설명

-
- 12) 2000년대 중반까지 이육사에 대한 연구는 학위논문과 학회발표 논문 등을 포함하여 200여 편이 넘게 축적되었다. 노의영, 「이육사 시의 이미지와 주제의식의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6.8, 1면.
- 13) 이동영, 「이육사의 독립운동과 생애」, 『나라사랑』제16권, 외솔회, 1974.9.
 정한모, 「이육사의 인물」, 같은 책.
 김홍규, 「육사의 시와 세계인식」,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비평사, 1988.
 조영식, 「이육사 시와 그 역사 인식 연구」, 『청람어문학』8권, 1993.1.
 함동선, 「육사 이원록의 시의식」, 문덕수 편, 『한국 현대 시인론』, 보고사, 1996.
 김용직, 「저항의 논리와 그 정신적 맥락」, 『한국 현대시 연구』, 일지사, 1997.
 신웅순, 「이육사 시의 정신」, 『새국어교육』66권, 2003.1.
 고영자, 「이육사 시정신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26권, 2005.1.
- 14) 김인환, 「이육사 시의 속뜻」, 『배달말』1권, 1975.1
 김인환, 「이육사 시의 계보」, 『문학과 문학사상』, 열화당, 1977.
 오세영, 「이육사의 절정」, 『한국 현대시 작품론』, 문장사, 1981.
 신상철, 「이육사 시어 연구」, 『국문학 자료집』제2집, 현대문학 편, 1983.
 최미정, 「이육사 시의 구조 고찰」, 『관악어문연구』11권, 1986.1.
 김현자, 「황혼 속에 자신도 우주화」, 『문학사상』160호, 1986.2.
 마광수, 「이육사의 시 「절정」의 또다른 해석」, 『현대문학연구』16권, 2001.1
 박호영, 「이육사의 「광야」에 대한 또다른 접근」, 『한국시학연구』5권, 2001.1

했다. 마지막으로 유학사상을 기반으로 한 동양적 지사 정신을 강조한 연구 있다.¹⁵⁾ 이들은 전통적 선비정신에 입각해 이육사가 시를 창작했음을 논증했다.

윤동주와 이육사는 동시대 ‘저항시인’으로 일컬어지면서 다수의 비교연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문사적인 소극적 저항의 윤동주와 대조하여 육사의 투사적 적극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시·공간, 이미지, 상징 등의 형식적 비교까지 광범하게 이루어졌다.¹⁶⁾ 이들을 저항시인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실제 삶의 이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김홍규는 이육사의 시가 그의 독립운동가의 이력으로 인해 신성화와 우상화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를 견어내고 고뇌와 결단의 인간적 실체를 찾아주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언명했다.¹⁷⁾

생태의식을 중심으로 한 시 연구는 이제 근대 시인들까지 포괄하는 영역적 확대를 꾀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¹⁸⁾ 이는 1990년

-
- 15) 박현수, 「육사 시에 끼친 주자학적 영향」, 서울대 석사논문, 1996.
 유양선, 「이육사 시와 주자론적 사유」, 『덕성어문학』10집, 2000.
 유병관, 「육사의 시와 유교적 전통」, 만해축전 현대시 심포지엄 발표문, 2004.
- 16) 이상숙, 「이육사 시의 동양시학적 분석을 위한 시론」, 『한국시학연구』제12권, 2005.4, 116면.
- 17) 김홍규, 「육사의 시와 세계인식」, 『문학의 역사적 인간』, 창작과비평사, 1980, 75~79면.
- 18) 이문재, 「백석 시의 생태학적 상상력 고찰」, 경희대 석사논문, 2004.
 원동선, 「박목월 시 연구: 생태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석사논문, 2004.
 이해원, 「백석 시의 에코페미니즘적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28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금은희, 「백석 시에 나타난 생태학적 세계관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6.
 김옥성, 「한용운의 생태주의와 시학」, 『東洋學』 제41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7.2.
 손민달, 「정지용과 백석 시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국어국문학』제147집, 국어국문학회, 2007.12.

대 주로 비평이 선도하는 입장에서 당대 시인들의 시를 중심으로 연구했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다. 그러나 근대시의 총량에 비하여 몇몇 시인들에 국한된 연구만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 이어서 보다 많은 근대 시인들의 시 속에 내재된 생태학적 상상력의 특징을 확인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조감하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 역시 그러한 인식 위에 기획되었으며 1940년대 시인들의 생태학적 상상력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전통과 근대 시 연구의 단절적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특히 1940년대 시문학 지형도에서 중심에 있던 운동주와 이육사의 생태학적 상상력을 논증하는 것은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영향 이후에 전개된 생태의식의 양상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II. 1940년대 시와 전통 생태의식의 관계

1940년대 일제의 식민지 착취가 정점으로 치닫게 되면서 문학적으로도 위기상황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흔히 ‘문학적 암흑기’로 명명 되는 이 시기, 시인은 자연으로 귀의하든가 절필을 결심하는 등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1930년대 시문학과와 모더니즘 수용과 주체적 근대의 성취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시에 있어서 풍성한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성과를 1940년대로 이어가 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폭력적이었기에 시인의 추동력은 절실했다.

전통 사상 속에 내재된 생태학적 사유는 일제의 식민지적 침탈 속에서 단절의 위협을 안고 있었다. 1920년대 이상화와 김소월,

손민달, 「1920년대 시의 생태주의적 상상력 연구」, 『인문연구』제53집,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07.12.

손민달, 「정지용과 백석 시의 전통 생태의식 비교 연구」, 『語文學』제99집, 한국어문학회, 2008.3.

1930년대 정지용과 백석 등에 나타난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문학적 변용은 이제 보다 본격화된 문학적 현상으로 1940년대에 표출되어야 했다. 그러나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 자행된 현실 세계에서의 억압은 시인들의 방향성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1940년대 흔히 나타나는 신화적 세계에 대한 회복 의지는 바로 전근대가 가진 온전함에 대한 회복과 전통 가치에 대한 복원을 갈구한 흔적이다. 따라서 1940년대 자연은 전통사회에서 보여준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전통적 가치를 회복해야 할 필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1940년대 생태학적 상상력을 고찰한 그간의 연구는 몇몇 시인에 국한되어 전체를 조망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조남현은 1930년대와 1940년대 소설 속에 나타난 생태론적 사유를 논의하면서 이와 같은 연구는 생태론적 인식을 지닌 작품들을 찾아내는 일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작가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텍스트 속에 감추어 둔 생태론적 인식의 알맹이를 찾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2분법적 근대성 만능론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⁹⁾

그런데 우리 문학에서 생태주의에 대한 관심이 꽤 일찍 싹이 텄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일본의 통치를 받던 그 암울한 시대에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아직 관심사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찍부터 몇몇 근대 시인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써서 관심을 끌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토착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김소월을 비롯해 가람 이병기, 서구지향적인 경향을 보이는 남궁벽, 계급문학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박세영, 그리고 전원으로 돌아갈 것을 외치는 권구현 같은 근대 시인들이 자연친화적인 작품을 꾸준히

19) 조남현, 「1930, 40년대 소설의 생태론적 재해석」,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5집, 한국현대문학회, 2004, 16면.

발표했다. 우리 문단에서 오늘날 꽃을 피우고 있는 생태주의도 어찌 보면 그들이 처음 씨를 뿌린 결과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²⁰⁾

김옥동이 제기한 근대 시인들과 생태학적 상상력의 관계는 구체적인 논의가 아니라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상상력의 발굴이 의미있는 작업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여기서 ‘생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라는 기준에 의해 거론되는 근대 시인들은 물론 오늘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의 현실을 목도한 사람들이 아님은 자명하다. 이문재와 금은희는 백석 시인을 대상으로 생태학적 사유에 대해 연구했다. 이문재의 경우 “백석은 근대의 사상적 핵심, 즉 이성과 합리주의에 바탕한 자율적 주체로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근대인이었지만, 시에서만은 근대화의 강력한 자장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과거와 단절하고,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근대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라고 하면서 감각과 방언, ‘자발적 가난’ 등을 그 증거로 삼았다.²¹⁾ 금은희는 ‘탈개인적인 가족공동체의 회복’,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지양과 대안’, ‘도시적 생활양식의 거부와 생명평등주의’ 등을 증거로 논의하였다.²²⁾ 김옥성은 만해의 작품에 나타난 생태의식을 지적하면서 “만해의 사상은 불교를 토대로 근대를 해석하고 수용하면서, 다시 근대를 통해 불교를 해석하고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구축된 탈근대적 유기체론이다.”라고 하였다.²³⁾ 그 외에 이상화와

20) 김옥동,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2003, 138면.

21) 이문재, 「백석 시의 생태학적 상상력 고찰」, 경희대 석사논문, 2004.

22) 금은희, 「백석 시에 나타난 생태학적 세계관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6.

23) 김옥성은 만해의 생태학적 사유의 특질을 ‘(1)만물은 평등하다. (2)만물은 인과론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3)우주는 만물이 펼치는 인과론적 상호작용의 유기체이다. (4)타자는 인과론적으로 자아를 탄생시키는 원인자이므로 아버지와 같다. (5)타자를 존중하고,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등으로 규정했다. 김옥성, 「한용운의 생태주의와 시학」, 『東洋學』 제41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7.2.

김소월, 백석과 정지용 등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을 고증한 연구도 있다.²⁴⁾ 이들의 성과는 근대 시인들의 시 속에 내재된 생태학적 사유를 발굴해 내고 이를 객관화했다는 점이다.

생태학적 상상력이 근대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한 양상이었다는 점에서 1940년대 생태주의적 사유체계는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근대가 중세 종교 중심의 철학에서 인간 중심의 철학 시대를 열어준 것이라면 생태주의는 바로 그 인간 중심, 이성 중심의 사유체계가 불러온 위기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1940년대 일제 말 식민지적 근대 속에서 더군다나 철저한 억압적 현실 속에서 시인은 근대의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더군다나 현실 세계의 폭력성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를 고민할 여유조차 부족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현실상황이 시인들에게 전통 사회의 공동체와 온전한 자연을 염원하게 했을 가능성 또한 크다. 보다 용이하게 자아와 타자가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해 나가던 전통사회에 대한 욕망과 함께 근대의 문제점을 심화해 나갈 수 있는 시대적 여건이 1940년대는 갖추어져 있었다. 운동주와 이육사가 그간 이러한 점에 주목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일제에 대한 저항이나 현실 인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논의 과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1930년대 정지용과 백석은 물론 이전 세대인 이상화와 김소월, 한용운 등에게서 나타난 생태학적 사유체계는 이후 1940년대 시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생태학적 사유체계는 단순히 친자연적 경향을 의미하지 않는다. 근대가 가져다준 폐해와 문제점을 배면에 깔고 이에 대한 극복이나 비판의 정신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혹은 전통 사유체계 안에서 꾸준히 이어져온 생태학적 삶의 원형이 담지되어 있어야 한다.

24) 손민달, 앞의 논문.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전통 시가의 음풍농월이나 자연친화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생태주의가 가진 탈근대의 요소가 고려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중국을 위시한 동양의 전통 사상 속에 내재된 ‘자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서구의 낭만주의자들과 같이 창조주의 구체적 현시(顯示)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것’으로서 중립적 실재에 가깝다. 둘째, 개인의 특정한 시각으로 조감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²⁵⁾ 한국의 자연은 근대 이전 자연과의 융즉에서 시작하여 강호가도의 이념에 이르기까지 일원론적 동양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입으면서도 그것을 창조적으로 변형하여 꽤 폭이 넓은 자연관을 보여주었다.²⁶⁾ 김지숙은 자연 지향시에 나타난 자연적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시원성’으로 사회와 문명개시 이전의 자연상태를 갈구하는 것을 이상으로 보고, 자연스럽고 단순하며, 자유로웠던 먼 과거로 돌아가려는 회귀(回歸, the revolution)성을 보임, 둘째, ‘순환성’으로 생명과 자연은 순환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인위로 자연을 바꾸는 행위들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자멸할거라는 경고, 셋째, ‘생명성’으로 생존위기 속에서도 생명존속을 위해 노력하고 생명상호공존의식을 담았으며, 생명에 대한 연대감을 느끼는 등 생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 등이다.²⁷⁾

근대 이후 시 속에서 자연은 시원성, 순환성, 생명성을 상실해 가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서구의 합리적 이성 중심주의에 의해 배태된 산업문명이 자연을 도구화하고 주변화한 결과다. 1940년대 한국은 일제에 의해 자행된 식민지적 근대

25) 유약우, 이장우 역, 『중국 시학』, 명문당, 1994.

26) 황용현, 「한국 현대시의 자연 표상 연구」, 경원대 박사논문, 2003.12, 43면.

27) 김지숙, 「자연지향시의 자연과 자연적 속성」, 『동남어문논집』 제10호, 동남어문학회, 2000.9, 239~240면.

화 속에 전통적 자연 속에서 구현된 공동체적 유대와 만물에 대한 평등한 인식, 작고 미천한 것에 대한 애정 등과 같은 생태학적 사유를 잃어가게 된다. 운동주와 이육사는 그러한 식민지적 억압 속에서도 전통적 사유체계 속에 내재된 생태학적 사유를 시로 표현한다. 물론 그것은 표면화되어 전면에 쉽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전통의 동양적 자연 취미를 강조한 소위 청록파²⁸⁾ 삼인의 시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체를 중시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III.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한 유기체적 인식 - 운동주의 시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볼 때 생태주의적 사유는 그 지위면에서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는 생태계의 요소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데카르트나 칸트를 위시한 근대 합리주의의 철학은 인간과 이성 중심의 사유체계를 강조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의 근간은 자연의 지위를 인간과 비교할 때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것은 오늘날 생태위기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바로 인간중심주의적 사유에 있다는 인식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0년대 운동주의 시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배격하고 유기체적 인식의 일면을 찾고 이를 증명하는 것은 생태학적 사유를 발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8)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등이 공저 『靑鹿集』(음유문화사, 1946)을 발간한 것에서 유래된 용어로, 이들은 생명의지, 향토적 정서, 동양적 사유 등을 통해 전통 자연의 전형을 보여주어 해방 후 잃어버린 조선의 원형 회복을 갈구했다. 본고에서 이들의 생태학적 사유에 대한 연구를 배제한 것은 기왕의 논문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종성, 「청록집 연구-자연관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1990.2. 최승호, 「<청록집>에 나타난 생명시학과 근대성 비판」, 『한국시학연구』제2호, 1999. 김병호, 「한국 근대시 연구-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2001.12. 황용현, 「한국 현대시의 자연 표상 연구」, 경원대 박사논문, 2003.12. 등이 있다.

윤동주는 일제의 잔혹한 현실 탄압 앞에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적 자아 확인의 과정을 보여준 시인이다. 그의 시편을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살펴보면 자연과 자연 속에 포함된 인간의 삶의 자세를 당대 여타 시인에 비해 면밀히 견지하고 있음을 포착하게 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있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序詩 전문²⁹⁾

「序詩」는 윤동주의 대표적인 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중적이면 서도 시적 성취면에서 탁월한 시다.³⁰⁾ 이 시는 자기반성을 시작으로 성찰의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구도를 밀도있게 그리고 있다. 이 시가 자기 성찰의 단계로까지 진행되면서 시적 자아의 내면에는 부끄러움이라는 지각이 나타난다. 이러한 해석은 그간 별 다른 거부감 없이 「序詩」를 해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었다.

이 시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생태학적 상상력의 관

29) 본고의 윤동주 시는 1948년 1월 30일에 발간된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기본으로 한 홍장학, 『정본 윤동주 전집 원전연구』, 문학과지성사, 2004를 중심으로 인용하였음.

30) 이승훈은 “많은 분들이 「서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윤동주의 시정신을 집약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의 대표작”이라고 했다. 이승훈, 「윤동주의 「서시」 분석」, 『윤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7, 429면.

점에서 접근하면 보다 풍부한 의미를 도출하게 된다. 이 시에서 생태학적 상상력에 의해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반성적 자세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기 반성의 철저함은 그 기준의 엄격함이 클수록 강하게 작용하고 더 철저한 반성에 이르게 된다. 이 시는 “일새에 이는 바람에도”를 그 기준점으로 상정하고 있다. 인간의 자기반성은 감정의 분출에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점만큼은 명시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바람’은 인간과 대등한 관계를 부여하고 인간에게 반성을 기회를 제공하는 자연물이다.³¹⁾ 이렇게 보면 전통 강호가도의 자연해석과 별단 다르지 않게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후 “모든 죽어가는 것”이라는 시구 속에 나타난 근대 의식의 파편화는 단순히 ‘道’를 함의하고 있는 자연을 넘어서고 있다. 인간과 대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자연의 가치를 끌어내는 운동주의 이 시는 인간 중심주의의 부정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구절이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에서 ‘별’은 그간 ‘도덕적 순수함’이나 ‘양심’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었다. 다음 행의 “모든 죽어가는 것”은 현존하는 모든 것이 죽어간다는 측면에서 ‘살아 있는 모든 존재’로 치환된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대함에 있어서 ‘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싶다는 것은 ‘지향하는 바’라는 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에서 자연을 우위에 두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별헤는 밤」에서 “이네들은 너 무나 멀리 있습니다./별이 아슬히 멀듯이,”라는 구절에서 ‘별’은 쉽

31) 김주연은 이와 관련하여 “시인의 양심이 얼마나 치열하게 당시의 시대적 삶을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열하게 보여준다. ‘일새에 이는 바람에도’란 가장 작은 단위의 신의 현재이며 이를테면 신의 콧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주연,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 김주연 편, 『현대문학과 기독교』, 문학과지성사, 1984, 113면.

게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으면서 언제나 가고 싶은 어떤 곳이나 정서이다. 윤희동의 이 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으로 볼 때 오히려 자연을 우위에 두고 그 속에서 인간의 반성적 자세를 갈구하는 시작 태도를 보인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하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自畫像」 전문

윤희동의 「自畫像」은 제목이 여러 차례 바뀌는³²⁾ 등 끊임없는 퇴고의 과정을 통해 시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려는 그의 시작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이 시에서 시적자아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한 사나이다. 이 사나이는 우물을 들어가 보다가 자신이 ‘미워져’ 돌아가다가 ‘가엾어’진 자신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 우물 속을 들

32) 「외딴 우물」에서 「자상화」로, 다시 「우물 속의 자상화」(『문우』, 연희전문, 1941.6)로 발표되었다가 자선시집에서 「자화상」으로 바뀌었다.

여다본다. 이제 사나이는 자신이 ‘미워’졌고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자신이 ‘그리워’진다. 어찌지 못하고 계속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이 시에서 사나이는 우물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우물’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거울은 사나이에게 미움-가엾음-미움-그리움이라는 정서적 변화를 가져온다. 우물을 들여다보는 사나이의 정서는 ‘미움’이라는 정서로 동일하지만 이 우물을 벗어난 곳에서 느끼는 정서는 ‘가엾음’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상태가 된다. 스스로가 미운 존재로 만드는 ‘우물’이 무엇인지는 ‘자아성찰의 계기’가 되는 사물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생태주의의 기본적 인식은 인간과 자연의 동일성이나 인간이 자연과 함께 생태계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는 유기체적 인식이다. 「自畫像」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물’이 중요한 시적 모티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우물은 거울처럼 단순히 자신만을 비추는 사물이 아니라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는 모습이다. 1연에 제시된 정경과 마지막 5연에 제시된 정경은 같은데 다만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것만 다르다. ‘달’, ‘구름’, ‘하늘’, ‘바람’은 자신이 가진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그것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이와 같이 온전한 생태의 자연물은 시적자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온전한 자연의 모습 속에 있다. 그런데 사나이는 그렇지 못하다. 마지막 연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는 것은 자연은 온전한 상태 그대로인데 인간은 그 자연에 소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자신 역시 그러한 온전한 상태의 자연의 일부로 자신이 ‘미운’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자연물은 성찰을 도와주는 매개체”³³⁾라고 지적한 것도 역시 자연물과 인간의 관계성을 고려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러한 관계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될 때 순환적이고 공존적인 생태계의 원리로 해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사나이는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함께 순환적 질서 속에 존재하고자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학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의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우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이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쓰서 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 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順伊의 얼굴이 어린다. 少年은 황홀히 눈을 감어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順伊의 얼굴은 어린다.

- 「少年」 전문

이 시는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소년을 그리고 있다. 소년에게서 ‘가을’은 슬픈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順伊’는 이 소년의 과거를 망라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현실의 괴로움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며 이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여기서 가을이라는 계절은 단풍잎이 떨어지는 ‘슬픈’ 계절이다. 그런데 단풍잎이 떨어진 자리에 나무는 “봄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리고 “나뭇가지 우에 하늘이” 펼쳐져 있으며 그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들게 된다. 자연의 이치는 바로 이렇게 한 계절을 지내고 나면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순환적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 단풍잎이 진 자리에 겨울의 혹독한 시간을 이겨낼 힘을 간직하고 봄을 준비하는 자연은 이제 시적화자에게 슬픔의 정서를 ‘황홀함’과 ‘아

33) 김용주, 「윤동주 시의 자아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04, 18면.

름다움'으로 환기한다.

인간이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유기체적 인식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해진다.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시적자아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그것을 수행하게 된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順伊의 얼굴이 어”리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몸으로 체화한 시적자아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되는 양상을 그린다. 과거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順伊’가 어리는 것은 슬픔을 추억 속에서 순화하는 과정이다. 이제 시적자아는 그 아름다움 ‘順伊’를 생각하며 “눈을 감어 본다.” 눈을 감는 행위는 인간의 지각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새롭게 정립된 가치를 받아들여려는 행위이다. 자연의 순환적 섭리를 몸으로 체화한 소년은 눈을 감지만 “아름다운 順伊의 얼굴”이 어리게 된다. 이는 그의 시 「산림」에서 ‘개구리’ 소리와 ‘별’이 “새날의 희망으로 나를 이끈다”라고 할 때 보여주는 인식과도 유사하다. 운동주는 이 시에서 자연이 인간의 정서조차 새롭게 변화시킬 힘을 가졌다고 여기고 있다. 온전하게 순환적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에게서 이치를 깨달을 때 인간은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게 된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문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새로운 길」 전문

이 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함께 가야 할 공동운명에 놓여 있는 존재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먼저 “내를 건너서 숲으로/고개를 넘어서 마을로”에서는 ‘숲’과 ‘마을’을 등치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숲’은 일상적으로 자연을 의미하며 ‘마을’은 인간이 모여 만든 인간의 사회나 문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단순화하면 자연과 인간의 문명의 관계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하게 된다. ‘고개’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인위적 장치가 아니라 자연에 속한 자연스러운 사물이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이 사는 마을을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함께 공존하는 다른 이름이다.

‘숲’과 ‘마을’을 동일시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시는 자연을 인간의 동행자로 나타낸다. 인간이 가야하는 “새로운 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민들레’, ‘까치’, ‘바람’과 같은 자연물을 동행자로 뽑고 있다는 점은 이 시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미래의 가치는 새로운 물질적 문명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래왔고 오늘도 그러하듯이 ‘숲’에 존재하는 자연인 것이다. 이것은 그의 시 「산울림」에서 “아무도 못들은/산울림” “저 혼자 들었다./산울림.”이라고 할 때 ‘까치’만 들을 수 있는 어떤 신령스러운 이치가 있음을 보여준 것과 흡사하다. 이 시가 단순히 소재적 차원에서 자연을 노래하지 않고 인간의 삶과 깊숙이 연관 짓고 있는 것은 바로 운동주가 유기체적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① 봄이 血管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돌, 시내 가차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추꽃,

三冬을 참어 온 나는
폴포기처럼 피여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이랑해서나 즐거웁게 솟치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 아른, 높기도 한데.....
- 「봄」 전문

② 우리 애기는
아래 밭치에서 코을코을,

고양이는
부뚜막에서 가릉가릉,

애기 바람이
나뭇가지에 소울소울

아저씨 햇님이
하늘한가운데서 췌앵췌앵
- 「봄」 전문

위 두 편의 시는 「봄」이라는 같은 제목의 시이면서 ①이 봄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②는 그러한 생명력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표현하여 연관성이 있다. 먼저 ①은 ‘개나리’, ‘진달래’, ‘배추꽃’, ‘종달새’는 봄의 생명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봄이 血管 속에 시내처럼 흘러” 자연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봄은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왕성한 생명력으로 자연을 피워낸다. 이제 그러한 힘을 가진 ‘봄’은 시적자아에게 “풀포기처럼 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물론 여기서 ‘나’는 “三冬을 참어”왔으며 이는 ‘봄’과 동일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과정으로서 이를 이겨낸 결과가 된다. ‘봄’이라는 계절이 지닌 생명의 약동은 ‘종달새’에게 “푸른 하늘을” “즐거웁게 솟”치라고 말한다. 계절의 순환과 그 순환을 그대로 부여받은 인간,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종달새’는 온전한 자연의 한 모습이면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것은 그의 시 「햇비」에서 비가 내리는 상황에 “옥수수대처럼 크게”, “햇님이 웃는다/나보고 웃는다”고 한 것과 같이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자연의 건강한 모습과 그러한 자연과 함께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과 상통한다.

②는 자연과 함께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서로를 위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따뜻한 정서를 환기하는 시다. ‘우리 아기’와 ‘고양이’가 잠을 자는 사이 ‘바람’도 ‘햇님’도 이들의 잠을 도와주고 있다. 여기서 ‘아기’는 어떤 문명적 삶에 찌들지 않은 순수한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 ‘아기’와 같은 존재가 될 때 자연은 인간을 해하거나 위협하지 않게 된다. 인간과 자연의 교감은 이렇게 강한 생명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 서로를 위무하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의 시 「산골 물」에서 ‘피로운 사람’에게 결국 ‘바다로 가자’고 한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 재생과 순환의 의미를 가진 바다로 가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 흡사하다.³⁴⁾ 이것은 윤동주가 가진 기본적 인식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

34) 이와 관련하여 이상호는 “바다는 모든 물의 귀착지이자, 또 끊임없이 재생하며 순환하는 영원의 존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호,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자아의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88, 84면.

성을 유기체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다. 함께 공존하면서 거대한 순환 질서에 함께 동참하는 요소로서 자연을 인식할 때 이와 같은 시가 창작된다.

이상에서 운동주의 시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을 살펴보았다. 운동주는 생태주의의 가장 기본적 사유인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유기체적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중심 사상을 거부했다. 전통적 사유체계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道를 전하는 인격체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1940년대 식민지 근대의 문제점을 인식한 운동주에게 전통사회의 자연의 위치를 복원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릴 것을 강조한 것은 단순히 자연친화와는 변별된다. 이는 1930년대 정지용과 백석이 보여준 전통적 자연관을 계승하면서도 자아의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³⁵⁾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화합을 꾀하려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이는 김지숙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순환성’에 가까운 시적 특성을 보여준 것이다.

IV. 신화적 세계인 자연과 소외된 자아의 대바-이육사의 시

생태주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유기체적 관계성으로 인식하고 동일한 요소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중요하게 다룬다. 전통적 사유체계 안에서 생태학적 인식은 굿, 설화, 풍수지리 등에 나타난

35) “운동주 시의 시적 자아는 모색과 사유의 과정으로서의 성찰적 자아로 보았다. 지적 자아는 자기를 반성하고 그것이 자기를 성찰하는 힘을 낳고 사유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믿고 계속해서 사유의 고삐를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사유가 지속되는 것은 시적 자아가 성숙된 자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한경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내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01.9, 168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통해 표출 되었다.³⁶⁾ 그러나 이보다 앞서 원형적 삶의 공간에서 자연은 물활론적 사고를 통해 확인된다. ‘물활론’은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신화적 세계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³⁷⁾ 이육사의 시는 신화적 세계로서 자연을 표상하고 그와 대비되는 자아의 모습을 상징함으로써 근대의 소외된 자아와 자연을 대비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운동주가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범주에 두고 유기체적 관계성을 중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통해 운동주의 시가 내면 지향적이고 이육사의 시가 외부 지향적이라는 점을 보완하는 논의가 보다 선명해진다.

내고장 七月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주절이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 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靑袍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36) 여기에 대해서는 임재해, 「전통 민속문화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 -순환공생·생극(生戢)의 생태학적 논리」, 『문화와 환경』, 2001년 봄호, 김옥동, 『한국의 녹색문화』, 문예출판사, 2000 등 참고.

37) 김옥동은 “영혼 숭배 사상이나 물활론적 자연관은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고 원시문화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살아 움직이는 동물은 말한 것도 없고 나무와 풀 같은 식물로부터 산토지강 같은 자연물, 그리고 해달벌 같은 천체에 이르기까지 온갖 생물과 무생물이 숭배 대상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심지어 길가에 나뭇구는 돌맹이와 깨어진 기왓장에도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옥동, 『한국의 녹색문화』, 문예출판사, 2000, 28~29면.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뻍 적셔도 좋으련

아니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두렴
- 「靑葡萄」 전문³⁸⁾

이 시는 미래지향적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시다. 김재홍은 이 시를 “과거의식, 현재의식 그리고 미래지향의 역사의식이 긴밀하게 통합되고 탄력 있게 작용함으로써 기다림의 철학과 평화의 사상을 완성한 데서 참된 의미를 보여준다”³⁹⁾고 평하였다. 그의 주장처럼 이 시는 과거로부터 얻게 된 믿음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확신한다. 현재는 “두 손은 함뻍 적셔도 좋”다는 긍정적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강한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당대 상황과 그의 지사적인 이력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된다.

「靑葡萄」는 크게 두 가지가 대조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과거 온전한 자연 상태에서 보여주었던 물활론적 사고의 전형과 현실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역사적 인간의 모습은 이 시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먼저 자연 상태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먼데 하늘이 꿈 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먼데 하늘이 꿈 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라는 구절은 청포도의 모습을 통해 이 고장의 생명력과 오랜 연원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신화적 세계에서 자연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가 바라는

38) 본고의 이육사 시는 1946년 발간된 그의 유고시집 『육사 시집』을 기본으로 한 김용직·손병희 편저, 『이육사전집』, 깊은샘, 2004를 중심으로 인용하였음.

39) 김재홍, 「투사의 길, 시인의 길」, 『소설문학』, 1986.1, 281면.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찾아오게 된다. 바라는 손님은 현실적 문제를 타개할 미래의 희망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가 ‘고달픈’ 것은 현실세계의 고달픔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다.⁴⁰⁾ 다만 그 손님은 고달픈 현실을 타개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지속적인 고달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손님 역시 “찾아 온다고 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손은 함뱍 적셔도 좋”고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靑葡萄」에서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신화적 세계 속의 자연과 손님조차 고달픈 현실적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의 대비는 장엄한 시간적 연속성 속에 낙관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는 이육사의 시에 공통된 특질인 미래지향적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면서 신화적 세계처럼 온전한 현실세계를 바라는 태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인간과 대조되는 자연을 부각시켜서 표현했다. 이는 운동주가 자연과 합일을 꿈꾸거나 동등한 유기체적 요소로 인간 중심주의를 거부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육사는 온전한 자연 상태를 신화적 요소로 파악하고 이를 회복하기 어려워하는 인간을 표현했다. 이는 이육사의 시가 운동주에 비해 인간소외라는 문제를 더 처절하게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0) 이와 관련하여 김용직은 “청포입고 오는 손님은 해방의 상징일 수밖에 없는데, 고달픈 몸으로 찾아오는 까닭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조동일은 “고난의 노래가 아니라서 사치스럽고 투쟁 없는 기다림으로 미래의 희망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했다. 김종철 역시 “국권을 상실한 시대에 살았던 선비의식 내지는 엘리뜨 의식의 소산이었음이 확실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김경복, 「이육사 시의 사회주의 의식 연구」, 『한국시학연구』제12권, 2005.4, 96면 재인용) 김경복은 이것이 사회주의 의식에 경도된 이육사의 전위적 혁명가의 관점에서 투쟁의 결실이 달성했을 때를 상정하여 미래의 소망을 그려보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복, 「이육사 시의 사회주의 의식 연구」, 『한국시학연구』제12권, 2005.4, 96~97면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방울 나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北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자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바리지 못할 約束이여

한 바다복판 용솨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城에는
 나비처럼 醉하는 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꽃」 전문

이 시에서 ‘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1연에서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비 한방울 나리잖는 그때에도/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라고 할 때 ‘꽃’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을 상징한다. 김윤식은 이 시의 ‘꽃’이 “극한 상황인 눈발 속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며, 현실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하여 굽히지 않는 시적 화자의 강인한 정신력의 집약체”로 보았다.⁴¹⁾ 그 ‘꽃’은 2연에서 더욱 강인한 생명력으로 표현된다. “北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은/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자거”리고 있다는 것은 극한의 공간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소유한 ‘꽃 맹아리’는 ‘約束’을 ‘저바리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게 된다. 여기서 “저바리지 못할 約束”은 대체로 자연의 순환론적 법칙에 의한 희망의 기다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복은

41)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74, 258면.

역사는 순환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의 역사가관이 순환론적 역사가관이 아니라 진보적 역사가관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사회주의혁명의 약속’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²⁾ 이는 이 시를 과도하게 역사적 상관성 속에 해석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시 자체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그것은 계절의 순환을 의미하면서 강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城”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자연물의 집합체다. 이것은 “나비처럼 醉하는 回想의 무리들”이 지칭하는 인간과 상반되는 공간이다. ‘回想의 무리’는 완전한 자연 속에서 생명력을 가진 신화적 질서를 그리워하는 인간의 무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신화적 세계 속의 자연은 극한 상황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비해 현실적으로 그러한 세계를 잃어버린 인간은 그러한 과거와 현실적 자신을 대비하고 있다. 물론 단순 대비를 넘어서서 이육사 시에 주로 나타나는 공통적 특질인 낙관적 미래 전망을 배면에 깔고 있다.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는 것은 미래를 낙관할 수 있도록 신화적 세계의 회복을 현실에 대해 탄식하는 것과 함께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육사의 「鴉片」에서 “玉돌보다 찬 녀이 있어/紅疫이 만발하는 거리로 쏠려//거리엔 노아의 洪水처럼 넘쳐나고/위태한 섬우에 빛난 별하나”라고 할 때 ‘별’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꽃’과 ‘별’로 표상되는 자연과 이에 위반되어 소외된 인간의 모습은 자연의 모습을 닮으려는 의지를 근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42) 김정복, 앞의 논문, 98면.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내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湖水속 깊이 거꾸러져
 참아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喬木」 전문

앞서 살펴본 이육사의 시가 자연과 인간의 대조적 양상을 표면적으로 드러냈다면 이 시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자연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이다. ‘喬木’에게 시적자아는 “푸른 하늘에 달을 듯이/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으라고 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뚝 남은 교목에게 ‘봄’이 와도 ‘꽃’도 피지 말라는 부정적 태도로 이해된다. 2연 역시 “마음”에게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내이는” 것이기에 “뉘우침”이 없다는 부정적 태도로 보인다. 그러나 3연에서 그 나무가 “마침내 湖水속 깊이 꺼꾸러”지면 “바람도 흔들”지 못하는 재생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앞 1연과 2연에 표현된 ‘꽃’과 ‘뉘우침’은 시적자아가 바라는 현실의 모습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차라리’와 ‘아예’라고 하는 긍정을 위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렇게 부정되었을 때 ‘喬木’은 “검은 그림자 쓸쓸”하게 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喬木’은 시적자아의 현실 세계의 부정적 인식으로 하여 온전한 자연을 사치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표면화했다. 따라서 그 의미 맥락을 다시 연결하면 현실세계에서 시달린 시적자아는 자신과 대비되는 ‘喬木’의 위용을 못내 시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봄고 꽃피진 말”라는 역설적 어조를 드러낸다. 그것은 2연에서 자신

에게 ‘뉘우침’이 간절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과 상통한다. 「喬木」은 앞서 살펴본 시와 같이 생명력 넘치는 신화적 세계에 있는 자연과 이를 자신의 모습과 일치시키지 못하는 인간의 소외된 삶을 역설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구겨진 하늘은 무근 얘기책을편 듯
돌담울이 固城가티 둘러싼山기슬
뻥쭉 나래밑에 黃昏이 무쳐오면
草家 집집마다 호롱불이켜지고
故鄉을 그린 墨畵한쪽 줌이쳐.

떡염 떡염 보히는 그림 조각은
압밭에 보리밭헤 말래나물 캐리간
가신애는 가신애와 종달새소리에 반해

빈바구니 차고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잔 두뺨우에 모매꽃이 피엿고.

그네줄에 비가오면 豊年이든다더니
압내江에 씨레나무 밀려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떼목을타고
서리사발 입저도 못오면 바람이분다.

피로가군 이삭에 참새가 날라가고
곰처럼 어린놈이 北極을 꿈꾸는데
늘근이는 늘근이와 싸호는 입김도

벽에서려 성애끼는 한겨울 밤은
洞里的 密告者인 江물조차 얼붙는다.

- 「草家」 전문

이육사의 시에서 자연은 신화화된 온전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김지숙은 이육사의 시에 나타난 자연이 “현실적 고통을 부정적인 자연매개와 전치시킴으로써 일제수탈로 죽음과 절망 사이에 놓인 화자 자신에 분노한다. 이는 또한 화자의 숨 막힐 듯 힘든 삶을 표현하며, 화자와 동일시시킨다”⁴³⁾고 했다. 이육사의 시에서 자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화화된 원형질의 자연 상태를 나타낸다. 이와 대조적인 현실세계를 극명하게 표출함으로써 그 세계에 대한 갈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자연에 시적자아 자신을 투사시킨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 시에서 현실세계를 표현한 부분은 “구겨진 하늘은 무근 얘기 책을편 듯/돌담울이 固城가터 둘러싼山기슬”, “벽에서려 성애끼는 한겨울 밤은/洞里的 密告者인 江물조차 얼붙는다”이다. 즉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는 현실세계의 궁핍함을 집 주변의 정경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2연에서 3연까지는 “故郷을 그린 墨畵한쪽” 속에 나타난 고향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가신애’와 ‘젊은이’의 낭만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고향은 현실세계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시적자아가 살고 있는 현실은 벽에 성애가 낄 정도로 춥고 가난한 상황이다 “江 물조차 얼붙는” 혹독한 겨울에 그는 그림 속 원시 고향을 그리워한다. 바구니를 찬 가시내와 풍년을 기원하는 젊은이의 모습은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으며 이와 대조적인 시적자아는 더욱 처절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이것은 「子夜曲」에서 “수만호 빛이래야할 내 고향이언만/노랑나비 고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러라”고 한 시적자아의 슬픔과도 같다.

43) 김지숙, 「일제 강점기 한국시의 자연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5권,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2, 103면.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스랴

모든 山脈들이
바다를 戀慕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犯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光陰을
부즈런한 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江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千古의 뒤에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
이 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曠野」 전문

이육사의 「曠野」는 그가 저항시인이라는 사실과 결부되어 대륙적인 기상, 민족사의 신성성, 원시성, 내지는 순수성을 지닌 작품이라는 범주에서 해석되었다. 그러나 명확한 창작연대도 알 수 없고 시어에 대한 해석이 구구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정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⁴⁴⁾ 이 시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曠野’가 어디냐 하는 것과 ‘白馬 타고 오는 超人’이 누구인가의 문제다. 먼저 ‘曠野’는 이 시의 1연에서 3연까지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1연에서는 광야의 원시성과 신비성이 강조

44) 박호영, 「이육사의 「광야」에 대한 실증적 접근」, 『한국시학연구』 제5호, 한국시학회, 2001.10, 93~94면.

되고, 2연에서는 광활성이, 3연에서는 역사성이 드러난다. 3연에서는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즈런한 季節이 피어선 지고”에서 계절의 순환성을 보여주고 있다.⁴⁵⁾ 1연에서 3연까지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이 ‘曠野’는 우리민족의 역사적 공간, 즉 민족 공동체가 오랜 세월 함께 삶을 영유한 터전으로서 자연을 의미한다. 이 자연은 민족이나 고향과 같은 지엽적 공간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⁴⁶⁾

‘超人’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4연에서 잘 드러난다. “지금 눈 나리고/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에서 “지금 눈 나리고”는 일제 하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⁴⁷⁾ 김경복은 이를 좀더 구체화 하여 “절망이 깊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는 역사적 시점, 즉 새로운 전환기의 한 복판”임을 주장한다.⁴⁸⁾ 이렇게 볼 때 “가난한 노래의 씨”는 조국 독립과 해방 의지로 볼 수 있다.⁴⁹⁾ 결국 ‘超人’은 “치열한 몸부림을 통해 자기극복을 성취하고 정신적 상승을 획득해가는 이상적인 인간형”이며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뜻한다.⁵⁰⁾

45) 김경복, 앞의 논문, 98면.

46) 이와 관련하여 박호영은 「자야곡」, 수필 「은하수」, 「계절의 오행」과 같은 작품과 지정학적 위치를 근거로 하여 그의 고향 ‘안동군 도산면 원촌리’라고 주장했다. 박호영, 앞의 논문, 94-97면.

47) 김용직,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378면.

48) 김경복, 앞의 논문, 100면.

49) 김학동, 『한국현대시인연구』, 민음사, 1977, 217면. 이와 관련하여 김경복은 보다 구체화 하여 ‘사회주의적 민족국가’ 건설의 염원이 내포된 것이라고 했다. 박호영은 “불모지로 변한 그의 고향을 예전과 같은 풍요로운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찬란한 열매를 가져다 줄 씨를 뿌리는 행위‘로서’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라고 주장했다. 김경복, 앞의 논문, 100면, 박호영, 앞의 논문, 103면.

50) 김재홍, 「육사 이원록」,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6, 282면. 박호영은 여기에 관해 “지금의 고향을 옛날의 고향처럼 복원시켜줄 존재”라고

이 시의 생태학적 해석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화적 세계로서 자연과 현실세계의 괴로움을 안고 있는 자아의 대비다. 1연에서 3연까지는 曠野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공동체적 유대를 통해 살아온 고향인 자연을 뜻한다. 그 자연이 이제 ‘눈’이 내리는 현실세계의 고난 속에 있다. 따라서 시적자아는 ‘홀로 아득’하게 된다. 온전한 자연과 이제 소외된 인간의 모습은 이 시의 중요한 특질이 된다. 다만 이 상황을 다른 시에 비해 ‘超人’을 설정하여 긍정적 기대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은 이 시가 가진 힘이 된다. 돌려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오히려 현실세계의 암울함을 더한다. 그래서 “千古의 뒤”라는 단서를 붙여 단절적 시간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이육사의 신화적 자연세계와 그 속에서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바탕으로 그의 생태학적 상상력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이육사는 현실세계의 고난을 원형적 심상의 이미지를 가진 자연과 대비함으로써 그것을 현실세계의 시련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현실적 고통을 이겨낼 힘이 과거 회귀와 같은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화한다. 이육사는 현실의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리얼리스트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는 운동주의 시가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생태계의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동질감을 느끼려 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볼 때 이육사의 시는 김지숙의 견해에 비추어 ‘시원성’에 가까운 시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보았다. 박호영, 앞의 논문, 102면.

V. 결 론

이상에서 운동주와 이육사를 통해 1940년대 생태학적 상상력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194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두 시인은 나름의 현실감각을 통해 현실과 치열히 부딪쳤을 것이며 이는 그들의 시를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었다. 1930년대 모더니즘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두 시인에게서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해명된다.

운동주는 생태학적 상상력의 가장 기본적 사유인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유기체적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중심 사상을 거부했다. 전통적 사유체계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道를 전하는 인격체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1940년대 식민지 근대의 문제점을 인식한 운동주에게 전통사회의 자연의 위치를 복원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릴 것을 강조한 것은 단순히 자연친화적 태도와는 변별된다. 이는 1930년대 정지용과 백석이 보여준 전통적 자연관을 계승하면서도 자아의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화합을 꾀하려했다는 데에서 진일보한 점이다.

이육사는 현실세계의 고난을 원형적이고 신화적 세계로서 자연과 대비함으로써 그것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이는 현실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과거 회귀와 같은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태도다. 즉 현실의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리얼리스트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는 운동주의 시가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생태계의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동질감을 느끼려 하는 것과는 다른 세계 인식의 방법이다. 온전한 상태의 자연과 동질화 되지 못하고 소외된 인간을 그리는 것은 근대의 문제를 목도한 결과다.

생태주의는 탈근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대 시인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해 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보다 정교

화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사유체계 속에 내재된 생태학적 사유를 발굴하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운동주와 이육사의 경우 생태계의 동일한 구성요소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봄으로써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육사는 신화적 세계로서 자연이 등장하지만 인간은 그 속에서 소외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40년대 시인들이 근대의 문제점을 서서히 인식하고 이를 거부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권영민 편저, 『운동주 전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문학사상사, 2000.
홍장복, 『정보 운동주 전집 원전연구』, 문학과지성사, 2004.
심원섭 편, 『일본 이육사 전집』, 집문당, 1986.
김용직·손병희 편저, 『이육사전집』, 깊은샘, 2004.

2. 논문

- 권석창, 「한국 근대시의 현실 대응 양상 연구」, 대구대 박사논문, 2002, 11면.
김경복, 「이육사 시의 사회주의 의식 연구」, 『한국시학연구』제12권, 2005. 4, 96~103면.
김열규, 「운동주론」, 『국어국문학』제27호, 국어국문학회, 1954.
김옥성, 「한용운의 생태주의와 시학」, 『東洋學』 제41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7.2.
김용민, 「생태사회를 위한 문학」, 『현대문학』, 2000.7.
김용주, 「운동주 시의 자아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04, 2면/18면.

- 김재홍, 「투사의 길, 시인의 길」, 『소설문학』, 1986.1, 281면.
- 김주연,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 김주연 편, 『현대문학과 기독교』, 문학과지성사, 1984, 113면.
- 김지숙, 「자연지향시의 자연과 자연적 속성」, 『동남어문논집』제10호, 동남어문학회, 2000.9, 239~240면.
- 김지숙, 「일제 강점기 한국시의 자연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제5권,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2, 103면.
- 김홍규, 「육사의 시와 세계인식」, 『문학의 역사적 인간』, 창작과비평사, 1980, 75~79면.
- 금은희, 「백석 시에 나타난 생태학적 세계관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6.
- 노의영, 「이육사 시의 이미지와 주제의식의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6.8, 1면.
- 박호영, 「이육사의 <광야>에 대한 실증적 접근」, 『한국시학연구』제5호, 한국시학회, 2001.10, 93~94면.
- 손민달, 「정지용과 백석 시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국어국문학』제147집, 국어국문학회, 2007.12.
- 손민달, 「1920년대 시의 생태주의적 상상력 연구」, 『인문연구』제53집,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07.12.
- 손민달, 「정지용과 백석 시의 전통 생태의식 비교 연구」, 『語文學』제99집, 한국어문학회, 2008.3.
- 손민달, 「한국 생태주의 문학 담론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8.6, 84~92면.
- 오세영, 「윤동주 시는 저항시인가」, 『문학사상』, 1974년 4월.
- 원동선, 「박목월 시 연구: 생태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석사논문, 2004.
- 이문재, 「백석 시의 생태학적 상상력 고찰」, 경희대 석사논문, 2004.
- 이상숙, 「이육사 시의 동양시학적 분석을 위한 시론」, 『한국시학연구』제12호, 한국시학회, 2005.4, 116면.
- 이상호,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자아의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88, 84면.
- 이승훈, 「윤동주의 <서시>분석」, 『윤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1997, 429면.

- 이혜원, 「백석 시의 에코페미니즘적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 28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 임도한, 「한국 현대 생태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9.
- 임재해, 「전통 민속문화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 -순환공생·생극(生 劇)의 생태학적 논리」, 『문화와 환경』, 2001년 봄호.
- 조남현, 「1930, 40년대 소설의 생태론적 재해석」,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5집, 한국현대문학회, 2004, 16면.
- 한경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내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01.9, 168면.
- 황용현, 「한국 현대시의 자연 표상 연구」, 경원대 박사논문, 2003.12, 43면.

3. 단행본

- 김용민, 『생태문학』, 책세상, 2003.
- 김옥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 김옥동, 『한국의 녹색문화』, 문예출판사, 2000, 28-29면.
- 김옥동,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2003, 138면.
- 김운식,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74, 258면.
- 김종철,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삼인, 1999.
- 김재홍, 「육사 이원록」,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6, 282면.
-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1998.
-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16면.
- 신덕룡 편, 『초록생명의 길 I』, 시와 사람, 1997.
- 신덕룡 편, 『초록생명의 길 II』, 시와 사람, 2001.
- 최동호, 『하나의 道에 이르는 시학』,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 최동호, 『디지털 문화와 생태시학』, 문학동네, 2001.
- 최승호 편, 『21세기 문학의 유기론적 대안』, 새미, 2000.
- 유약우, 이장우 역, 『중국 시학』, 명문당, 1994.
- 한스 요나스, 이진우 역, 『책임의 원칙 :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 Andrew Dobson, 정용화 역, 『녹색정치사상』, 민음사, 1993, 26면.

A Study on the Traditional Ecological Consciousness in
the Poetry of the 1940s

- With a focus on the poems by Yun Dong-ju and Lee Yuk-sa

Son, Min-Dal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the traditional ecological consciousness in the poetry of the 1940s through the poems by Yun Dong-ju and Lee Yuk-sa. The findings will provide some clues to prove how the immanent ecological consciousness of the traditional thinking system was passed down to the modern times and to recover modern times disconnected in the study on the poetry of ecologism.

First, Yu refused human-oriented ideology by setting nature-man relationships as organic ones. In the traditional thinking system, nature functioned as a personality to deliver morality to man. Recognizing the problems with the colonized nation in the modern times of the 1940s, Yu emphasized restoring the place of nature in the traditional society and leading a whole life as a human in it, which is different from a simple nature-friendly attitude.

And Lee contrasted an archetypical and mythical world with nature to reinforce the hardship of the real world, which is based on his attitude that the strength to overcome realistic pain is not the matter of emotional dimension such as regression to the past. It's a different way of perceiving the world from Yun that saw man and nature as the equal constituents of ecosystem and tried to identify with nature. Lee depicted humans that failed to identify with nature in a whole and perfect state and were alienated because he witnessed the problems of the modern times.

Two of the greatest poets in the 1940s, Yun and Lee rejected human-oriented tendencies by dealing with man and nature as the equal elements of ecosystem and presented nature as a mythical world, in which,

however, man was alienated. Those findings prove that the poets in the 1940s gradually recognized the problems with the modern times and developed an attitude of rejecting them.

Key words : ecologism, imagination, Yun Dong-ju, Lee Yuk-sa, views on nature, organisms, modern times, traditions, archetypes

손민달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152-831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185-15번지
전화번호: 011-897-8397
전자우편: smindal@hanmail.net

이 논문은 2008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8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12월 30일 간행함
